

시편 126(125), 1-2ㄱㄴ. 2ㄷㄹ-3. 4-5. 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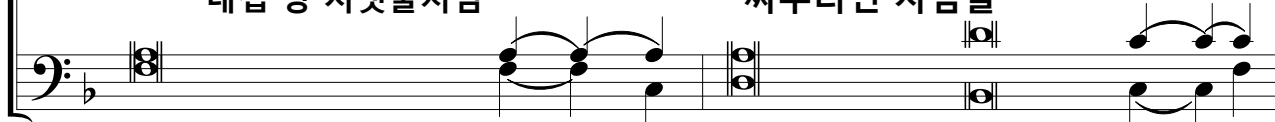


(후렴)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.



1.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주실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 하-였네.

2. 그 때 민족들이 말하였-네. "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."

3. 주님, 저희의 귀양살이 되돌리소서. 눈물로 환호하며 거두리라.
네겟 땅 시냇물처럼 씨뿌리던 사람들

그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-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.

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 하-였네.

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- 람들 곡식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.

